'새와 더불어 살아온 35년'

이말은 지난 9일 정년퇴임을 한 원병오(문리대, 생물학)교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일 것이다. 우리 나라 조류학 발전에 평생을 바친 원 교수를 찾아가 이모저모를 알아 보았다.

"그 때만해도 조류학이란 낯선 학문이지요. 제가 조류학에 깊이 빠져들게 된 데에는 돌아가신 아버님 영향이 크지요"

원 교수의 선친은 해방전후라는 격동기에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조류학을 했던 원홍구 박사이다. 원홍구 박사에 대하여 원 교수는 할 말이 많다.

"아버님 소식을 듣게 된 것도 철새때문이지요. 지난 60년대에(農林省 JAPAN 7655)라 적힌 가락지를 북방 쇠찌르레기 다리에 끼워 날려보냈는데 그 놈들이 북한에까지 갔지 뭐예요. 일본에는 가지 않는 철새에 일본 표지가 붙어 있는게 궁금한 북한 조류학자인 아버님이 수소문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선이 닿은 거죠. 아버님이 살아 계신걸 확인한 것이었죠."

철새가 아버지 소식을 물어다 준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류연구라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북에서, 아들은 남에서 꽃 피운 조류연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 낸 것이다.

물론, 생사를 확인시켜 준 데에는 일본 동경에 있는 국제조류보호협회 아시아지역 본부에서 일하는 조류학자들의 훈훈한 우정도 한 몫을 했다. 이 일로 원 교수와 원 박사 두부자의 일화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소련의 '프라우다'에도 소개 되었다.

새 덕에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한 원 교수이기에 원 교수는 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또 이러한 애정은 지구 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전에 앞장 서는 힘이 되고 있다.

"각 나라의 무관심이 새를 죽이지요. 새는 인류 (공동의 자원)이므로 함께 책임져야 해요. 국제 철새 보호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할 때이고요."

국제조류보호학회 아시아지역 회장이기도한 원 교수가 바라는 소망이요,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원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66년 문화재 위원으로 임명된 후로 자꾸 사라지는 희귀새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30여년간 50여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데 견인차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운동, 철새 보호 운동을 하는 원 교수는 이제 명예교수로 남아 대학원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이제 저의 학문은 남은 여생동안 새와 함께 살며 연구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새와 함께 살면서 안 것을 후학들에게 남겨 줘야죠. 제 일이 한국과 세계 조류 연구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를 찾는 길, 그리고 후학과 함께 가는 길. 어언이 정년 퇴임후 원 교수가 희망하는 남은 여정이다. 〈이유경 記者〉

◇'새 박사' 원병오 교수 퇴임

선친 영향 받아 조류학에 입문

"새와 살며 후학 지도하고 싶어요"

경희를 빛낸 2인

요즘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TOEFL이나 TOEIC 한 권 쯤은 가지고 있다. 최근 기업체의 영어 시험이 생활영어 위주로 바뀌면서 TOEIC에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대학 졸업반의 TOEIC 평균 성적은 5백점 정도, 대기업체에서도 5백50점 이상이 되면 승진 등에 가산점이 부과될 정도로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학교 이동호(전산·3)군이 지난 5월 29일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 50여개국에서 동시에 치뤄진 TOEIC 시험에서 우리나라에서 2등, 전세계 1%안에 드는 9백10점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하루 7-8시간을 영어에 투자하죠. 매일 신문을 포함한 모든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해 보고 영작으로도 전환해 생각해 보는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죠."

◇토익 9백10점의 이동호군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학과목성적은 저조하리라는 생각은 곧 뒤집어졌다. 그는 상위에 속하는 자신의 학점을 솔직히 말해주면서 강의시간에 집중하고 시험기간때 공부하는 것 뿐이라고 자신의 전공 공부법을 일러주었다.

밝고 쾌활한 그에게도 삶의 아픈 단면이 있었다. 대학교문을 들어서기까지 남보다 2년을 더 입시전쟁터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그의 좌우명도 이때 굳어진 것이리라. '한번 세운 목표를 잃는다면 두배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그의 생활들을 되짚어 보니 이번 시험점수 결과가 놀라울보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보통 하루 수면시간이 4시간, 중학교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 중국어도 공부했었다는 그는 영어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영어는 관심이예요. 시험점수를 얻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먼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영작하고 영어로 바꿔보는 자세를 갖기를 바래요."그러면서 그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제 경험으로는 1년정도만 영어에 투자하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과공부도 함께 하면서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MICHIGAN ACTION ENGLISH'로 공부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부는 못 보더라도 반정도만이라도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어릴적 꿈은 육사를 나와 장교가 되는 것이었는데 고2때 통역사가 되기로 했어요. 지금은 방송국 PD가 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통역사의 꿈 또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가정 'Q&A'라는 전산과학생들의 모임의 강사(?)로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강단에 서서 여러 학생들앞에서 웃는 그의 얼굴이 눈에 떠오른다. 〈고혁민 記者〉

고득점은 반복 학습의 결과

장래희망은 방송국PD와 통역사

"이용학생 적어 편해요"

◇스쿨버스 오리구간 시승기

수원캠퍼스 스쿨버스 노선 중 분당선이 개통되어 그동안 등하교길의 만성적인 피곤과 짜증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일 수서역에서 오리역에 이르는 수도권 전철 10개 구간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오리와 학교를 연결하는 스쿨버스 노선이 신설 되었고 현재 여기에 스쿨버스 5대가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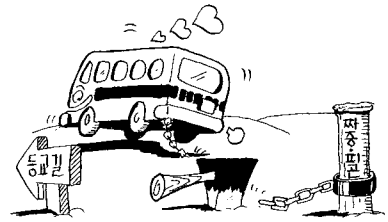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스쿨버스를 탈 수 있는 오리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1분, 오리역에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다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시간상으로는 다른 구간을 통하는 것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지옥철'로 더 잘 알려진 지하철 1·2호선에서 얻는 불쾌함과 비교할 때 분당선의 경우 이용 승객이 격차 한량당 10여명에 불과하여 불편함이 덜하고 또 오리역의 스쿨버스 이용 학생도 적을 뿐더러 회차시간도 짧아 수원이나 강남 또는 남부터미널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이용학생도 드물어 훨신 더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다.

분당선 스쿨버스를 처음 이용해 본다는 한성유(체육·3)양은 "시내버스와 스쿨버스를 번갈아 이용할 때는 기다리기 지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집인 분당에서 학교까지의 등교를 아예 포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요"라며 분당노선 신설을 반가와 하기도 했다.

오리역을 출발한 스쿨버스는 미금역을 지나 수서지구와 풍덕천 로타리를 경유하여 신갈을 통해 학교로 들어오게 된다. 이 코스는 오리역에서 바로 풍덕천 로타리를 지나 학교로 들어오는 구간보다 3㎞정도 돌아가는 구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오는 30일경 오리에서 풍덕천 로타리를 곧장 연결하는 1.5㎞구간으로 강남의 수송인원을 분당으로 분산해야 함은 불가피한 일이다.

현재는 분당선 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구간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 학생이 가장 많은 오전 9시를 전후한 시간에도 교작 10-20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부터 신갈 경유 좌석버스 운행

스쿨버스 요금, 배차시간 조정 검토

오는 13일부터 오리에서 신갈을 경유하여 용인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운행될 예정이고 스쿨버스 업자측도 이용학생이 스쿨 버스 한대당 50명 수준만 된다면 운행 간격을 8-10분간격으로 좁힐 방침이어서 분당지역 거주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의 이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종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는 오리에서의 지하철 막차시간에 맞추어 오후 10까지로 되어 있는 막차시간의 재조정과 현재 4백원으로 되어있는 요금을 수원요금수준인 3백50원으로 재조정하기위해 업자측과 계속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리없이 요금을 인하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분당선 이용학생이 많아질 때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할 때 줌더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들의 분당선 이용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경화 記者〉

학술단신

전자과 학술발표회

지난 9일 전자공학과는 '94 추계 학술 논문 발표회를 공대 세미나실등에서 가졌다. 이날 오전 행사로서 박사학위 청구논문 2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5 분과로 나뉘어져 석사과정 2기 이상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NASA와 공동연구

우리학교 레이저 공학 연구소(소장 이주희 공대·전자공학 교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상 공동관측 계획에 참가한다.

이 지상관측프로그램은 우주 공간에서 라이다의 기술적인 우수성을 검증하고 범세계적인 지구대기 및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전세계적인 지상공동관측 프로그램에서 레이저 공학 연구소는 수원상공의 고도별 에어로졸 및 성층권 고도별 온도분포를 측정하게 된다. 나사의 관측장치는 우주왕복선에 탑재하여 지난 10일 미국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됐다. 이 장치는 약 9일간 지구주위를 회전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순환궤도는 2백59㎞이다. 또 주요 관측대상은 구름, 에어로졸, 지표면의 특징, 지표면 알베도, 온도분포 및 대기농도 등이며 35m의 매우 높은 공간분해기능을 가지고 관측하게 된다.

레이저 공학연구소는 지난 10일, 12일과 오는 14일, 17일에 걸쳐 관측을 실시하며 관측된 결과는 즉시 나사에 보고되고 자료는 1개월 이내에 분석하여 발표하게 된다. 한편 본연구소는 지난 92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원상공의 고도별 에어로졸 및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대류권 및 성층권 라이다를 설치, 운전하고 있다. 또 이의 관측결과를 CLEO '94국제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교수업적집 발간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개교 이후부터 올 2월말까지의 교수의 논문과 저서를 수록하여 교수업적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업적집은 9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1~2년 단위로 발간된다.

동아리와 함께하는 체이스컬트④

자연은
정직하게 노력한만큼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배달녹색연합」의 영롱도 갯벌 달사

갯벌을 지키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갯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우린 그 소중함을 억지로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공해와 개발의 손길에 위협받고
있는 갯벌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갯벌은
우리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직한 노력에
복스러로 대답해줄 것을 부드러운
배달녹색연합은 우리의 땅, 우리의 바다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한
환경보호 동아리입니다.

정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유—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

체이스컬트, 커다란그 모임에 관심이 있는
대학 서클이나 학과는 체이스컬트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양식에 신청해 주십시오.

■본사영업망 대표인쇄사 역소 : 서울 중구 만리동 1-62-7 대보빌딩 6층 서울지영업소 : 580-0361~6 서울고양업소 : 580-0311~5 고양인쇄센터 : 520-7931~42 영업부 563-6463 정보지사 776-4784 본부 770-1120 충무지부 739-5476 경일지부 900-5455 화랑 463-3550 공릉 434-1067 동대문 742-3520 약수 253-8750 명지 305-4156 신촌 338-7561 연신내 386-7827 노원 934-7727 미아리 984-2211 수유 995-7925 중랑 919-8870 강신로 742-6877 신당 298-6051 구로 644-9885 역삼로 F 638-7577 역삼 F 631-1100 공릉 605-2940 역동 651-2591 관악 539-3907 중앙 587-5191 화곡 608-6494 동작 642-1625 영등 681-1740 동작 871-7791 전민 871-3660 개봉 613-7777 부천 400-8446 동두천 864-2522 동촌 484-2922 울산 449-4418 울산 423-6746 김포 419-3599 개봉 681-9259 나주 862-6316 동인천 764-0521 765-0598 부평 0321 525-3974 북부 0321 654-1105 안성 0334 439-8329 수원 0331 273-9934 수원 0331 312-8991 의왕 0344 463-8429 일산 0344 976-5859 오두산 0351 164-1351 포천 0356 532-7272-8706 의정부 0351 846-6687 양평 0338 772-0090 고양 0348 941-2338 이천 0336 632-8613 소래 0327 691-0150 부천 0321 691-3441 안양 0343 45-0157 안산중앙 0345 410-3250 안산 0345 94-8234 광주 0339 656-2977 오산 0339 374-1383 군포 0343 57-0716 수원 0331 255-7380 의정부 0351 71-9011 강서 0342 756-6202 0336-6012 부천 0337 84-1927 용인 0335 37-4655 안양 0343 63-6504 부천 0347 65-3595